

2021년 50+정책포럼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

2021.11.18(목) 14:00-17: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유튜브 생중계

2021년 50+정책포럼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

… 기초발표

기초발표 1	사회변화와 1인가구 현황과 특성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8
기초발표 2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수요 분석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 24

… 주제 1. 사회적 관계

주제발표 1-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및 정책 제안 박승곤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8
주제발표 1-2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사회적 문제 김미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 46

… 주제2. 사회적 안전망

<hr/> 주제발표 2-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일자리 모델 제안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 56
<hr/> 주제발표 2-2	안심소득과 중장년 1인가구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66
<hr/> 주제발표 2-3	중장년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 7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문혜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문혜정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전국 최초 베이비부머를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의 생애전환과 사회참여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는 퇴직 후 인생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비혼주의의 확산과 이혼, 기러기부부의 증가 등으로 외로움에 방치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고립, 빈곤, 고독사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집단입니다.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에 비해 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바 저희 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를 주제로 2021년 50+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1인가구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논의하고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특히 국내 최초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진행되는 장으로서 행사 시작 전부터 전국 중장년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자, 정책 전문가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의제가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2021년 50+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50+정책의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중장년 정책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1인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1인가구가 복지외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서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의 5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단절되면서 고립, 빈곤, 고독사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설치해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 등 1인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50+정책포럼'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일자리, 소득, 주거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 등 정책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풍성한 논의를 토대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중장년 1인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개요

2021.11.18(목) 14:00-17: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유튜브 생중계

사회자 |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개회

14:00~14:10 축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기조발표

14:10~14:50 기조발표1 **사회변화와 1인가구 현황과 특성**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조발표2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수요 분석**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14:50~15:00 휴식

주제1. 사회적 관계

15:00~15:30 주제발표 1-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및 정책 제안**
박승곤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1-2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사회적 문제**
김미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주제2. 사회적 안전망

	주제발표 2-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일자리 모델 제안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	----------	---

15:30~16:15	주제발표 2-2	안심소득과 중장년 1인가구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주제발표 2-3	중장년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	----------	--

16:15~16:25	휴식	
-------------	----	--

종합토론

16:25~16:50	좌장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패널 박승곤 교수, 김미나 센터장, 임소현 박사, 박기성 교수 / 이상 발표자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

폐회 및 마무리

2021년 50+정책포럼

기조발표 1

사회변화와 1인가구 현황과 특성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학력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University of Minnesota, 사회학 석사

경력

(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현) 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 부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부총장

논문/저서

2021. Precarious Asia: Global Capitalism and Work.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박영사.

2015.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연구: 노동, 복지와 정치. 한울.

2014.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한울.

사회변화와 1인가구 현황과 특성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1. 도전과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한국은 1960년대 초 산업화를 시작하여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민주화는 산업화보다 훨씬 늦은 1987년에야 시작되었지만, 민주주의 역사도 이제 30년이 넘어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후발 산업국이자 신생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서구가 경험한 역사적 과정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추격발전'을 통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정치는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와 절차를 통한 복지제도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후발 복지국가인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가 이미 해결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서구의 복지 자본주의는 남성 가장의 일을 통한 소득과, 그에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모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실업, 질병, 장애, 퇴직 등),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켰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차원에서의 무상 교육을 도입하였으며,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까지도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를 제도화하였다.

2. 후발 복지국가와 중첩된 사회적 위험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정치 등 사회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영국의 300년 변화와, 후발 산업국인 일본의 150년 변화와 맞먹는 급속한 변화가 한국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루어졌다.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와 문화 부문 중 산업화에 중점을 두어,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를 추구하였으며, 1962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가 시장에 경제를 맡기지 않고,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성장만을 국가의 주된 목표로 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었다.

발전국가는 경제 이외에 정치, 사회와 문화 영역의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경제변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복지와 문화적 차원의 개방성과 맞물린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활력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고도성장 시기에 사회문화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오늘날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유럽은 오늘날의 복지제도 틀을 완성시켰지만, 일본은 경제성장만을 강조하여 전혀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미 1970년 중반부터 가족복지(출산, 육아, 아동과 노인 돌봄 등)가 미비하여 저출산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기존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

한국도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급증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기대수명 증가율은 연평균 0.48세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미국 0.17세, 일본 0.29세, 스웨덴 0.18세). 그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20년 15.7%로 급증하였고,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복지국가 논의는 대단히 늦게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는 ‘오래된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인 실업, 질병, 산업재해, 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복지제도가 전후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20세기 말 경제침체와 제2차 인구전환에 대응하여 복지제도 조정이 이루어졌다. 세계화, 탈산업화와 고용체제의 유연화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영역의 변화와 저출산, 가족의 변화, 결

1 2019년 일본 인구는 126,167,000명으로 2008년 128,084,000명에 비해서 무려 191,7000명이 줄어들었다(일본 통계청, 2021). 일본의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 비중은 2021년 4월 기준 11.9%로 인구 규모 4,000만 명 이상의 33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참고로 한국은 12.2%가 두 번째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13.3%였다(UNSD, 2019).

혼과 출산과 관계 약화, 고령화, 인구 불안정과 같은 사회영역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는 복지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영역의 변화는 특히 제2차 인구전환이라고 불리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Lesthaeghe and Surkyn, 2008; Lesthaeghe, 2011). 전후 서구의 복지국가는 제1차 인구전환이라고 불린 ‘고출산-고사망’에서 ‘저출산-저사망’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20세기 후반 복지국가의 조정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나타난 가족형성, 인구의 변화인 제2차 인구전환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은 서구 사회들에서 나타난 실업, 빈곤, 질병과 같은 ‘오래된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와 1인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후발 복지국가인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보다 총체적인 접근과 여러 복지정책을 한꺼번에 모색해야 하는 압축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한국의 복지는 남성 가장 가구·가족 돌봄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남성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여성이 주로 보육과 가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다. 또한 아동보육과 노부모 간병도 가족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2018년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의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가족이 가족 수준에서 필요한 돌봄 노동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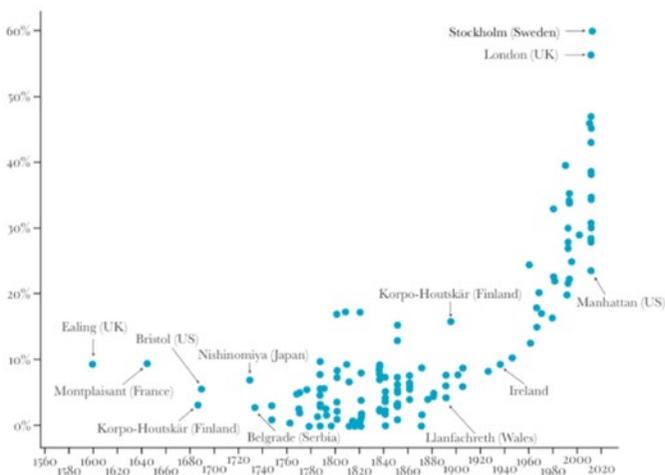
한국에서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1인가구의 문제이다. 1인가구는 만혼이나 비혼과 같은 가족형성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가족관계와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에서도 핵가족보다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1인가구의 증가가 대단히 새로운 한국사회의 변화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는 변화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심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1인가구의 시대

1인가구의 비중은 전대미문의 현상으로 20세기 들어서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대응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홀로 사는 가구는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Snell, 2016). 1인가구 문제는 인구학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만들어 내는 심장질환, 뇌출혈 등과 같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학적인 현상으로도 간주된다.

또한 1인가구의 비중은 대체로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경제 수준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여서, 방글라데시 2%, 인디아 4%, 알바니아 6%, 베트남 7%, 멕시코 10%, 중국 15%, 홍콩 17%, 태국 18%, 뉴질랜드 22%, 한국 24%, 아일랜드 24%, 호주 24%, 그리스 27%, 영국 31%, 일본 32%, 프랑스 34%, 독일 37%, 핀란드 41%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선진 산업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서 더 높은 1인가구 비중을 보여주어서, 2012년 1인가구의 비중이 런던에서 50% 이상, 스톡홀름에서는 무려 60%에 달하였다(Snell, 2017: 9).

<그림 1> 1인가구의 증가 추세



자료: <https://ourworldindata.org/living-alone>(2021.10.25 접속)

한국에서도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0.4%로 30%를 넘어섰다.²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이다. 한국에서 나타난 1인가구 증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이다. 1980년 전체 가구 중 4.81%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는 2000년 15.54%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 27.2%, 2020년에는 30.4%로 20년 사이에 거의 2배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한국의 1인가구 비중도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2000년대

2 통계청의 1인가구 비율 통계치는 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인가구 비율을 지역별고용조사 1인가구 현황은 30.4%로 보고하고 있지만, e-지방지표 1인가구 비율은 31.7%로 보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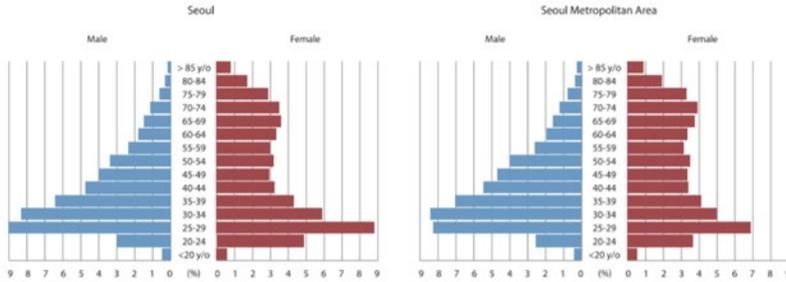
에는 1인가구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일본의 1인가구는 2000년 27.6%에서 2015년 34.1%로 증가하여, 15년 동안 5.5% 포인트 증가하였던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1.66% 포인트 증가하여 거의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1인가구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유럽 여러 나라들이 35% 이상의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의 1인가구 증가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어서 노인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농촌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1인가구의 증가가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1인가구 비율은 지방에서 높고, 도시에서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서구와 차이를 보인다. 2020년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35.0%에 달하였고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40.7%), 영월군(38.1%), 충북 괴산군(41.5%), 경상북도 영덕군(40.2%), 경상남도 의령군(41.6%), 전라남도 곡성군(41.6%) 등 모두 농촌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각각 삼척시(13.2%), 영월군(16.9%), 괴산군(15.8%), 영덕군(23.05), 의령군(24.0%), 곡성군(22.1%)으로 전국 평균 7.9%에 비해서 대단히 높았다.

셋째, 그러나 한국에서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전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의 1인가구 비율은 33.9%로 한국 도시 중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로 33.1%에 달했다. 이는 학생들과 미혼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서울에서도 관악구(51.9%)는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젊은 청년 비율 또한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어서 청년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반대로 서울 지역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중구나 종로구에서도 1인가구의 비율이 각각 41.0%와 41.4%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전체의 1인가구 추세와 비교하면, 서울의 1인가구 증가는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전체의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에는 9.0%로 연평균 0.52%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2000년 15.5%에서 2020년 30.4%로 증가하여 14.9%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서울시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6.3%에서 2020년 33.1%로 16.8% 포인트 증가하여 서울의 1인가구 증가는 전국의 1인가구 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2020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의 경우, 25-29세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74세에서 다시 높아졌다. 남성의 경우에는 25-29세에 가장 높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2> 서울과 수도권 1인가구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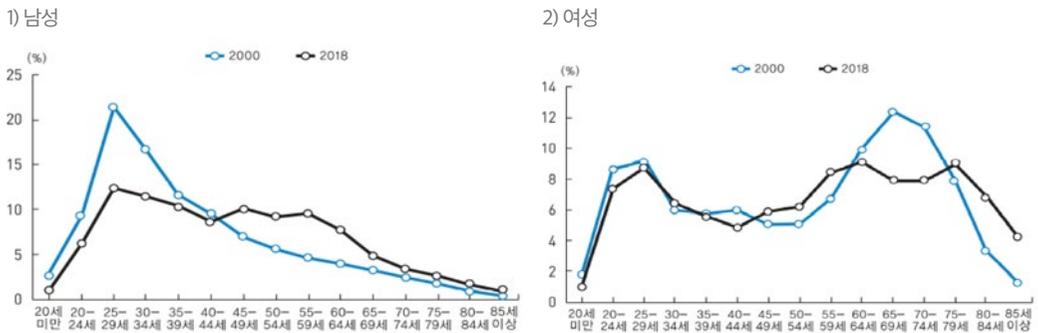


자료: Seoul Institute(2019), Seoul Statistical Series, p. 34.

4. 1인가구의 특성

1인가구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1인가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1인가구의 증가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사이에 남성 1인가구는 207.5% 증가하였고, 여성 1인가구는 130.0% 증가하였다(통계연구원, 2019: 80). 남성의 경우, 2018년 1인가구는 25-30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0년과 달리, 2018년에는 남성 40대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다시 높아졌는데 이것은 이혼의 증가로 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27세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가 그 이후 낮아졌고, 다시 50대 초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75-79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여성의 생애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미혼 여성들의 높은 1인가구 비율은 이혼으로 인한 1인 중년 여성 가구의 증가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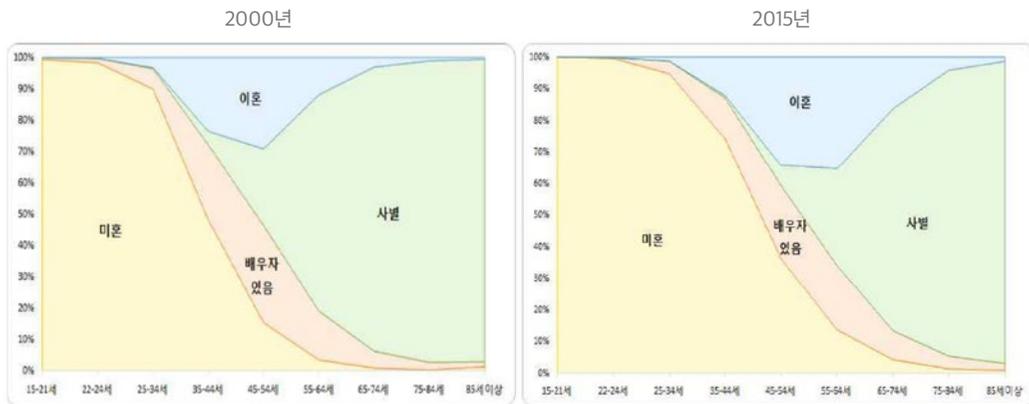
<그림 3>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분포



자료: 통계개발원(2019), 한국의 사회동향 p. 80.

1인가구의 혼인 상태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미혼은 2000년 43.0%에서 2015년 43.8%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배우자 사망에 의한 1인가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2000년 35.1%에서 2015년 29.5%로 5.6%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이혼에 따른 1인가구는 2000년 9.8%에서 2015년 15.5%로, 5.7% 포인트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1인가구로 사는 경우는 2000년 12.0%에서 2015년 11.1%로 0.9% 포인트 감소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으로 혼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비혼과 이혼이 크게 늘어났다.

<그림 4> 1인가구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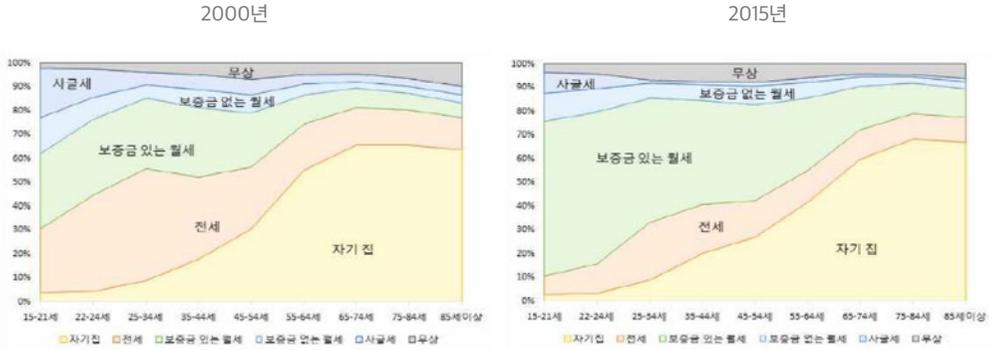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1.

<그림 4>는 2000년과 2015년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구성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1인가구의 추이는 중년 이후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와 사별로 인한 1인가구 감소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인가구에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인가구에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45-55세에서 29.1%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55-64세에서 35.2%로 높아져서, 장년에서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 사망에 의한 1인가구 비중도 2000년에는 55-64세부터 급증하였으나, 2015년에는 65-74세로 높아졌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 사망에 의해 1인가구가 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매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저축이나 대출을 통하여 이루어져 주택 소유는 일정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림 5>에서처럼, 주택소유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진다.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점유형태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20대와 30대에서 전세가 크게 줄고,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크게 늘었다. 65세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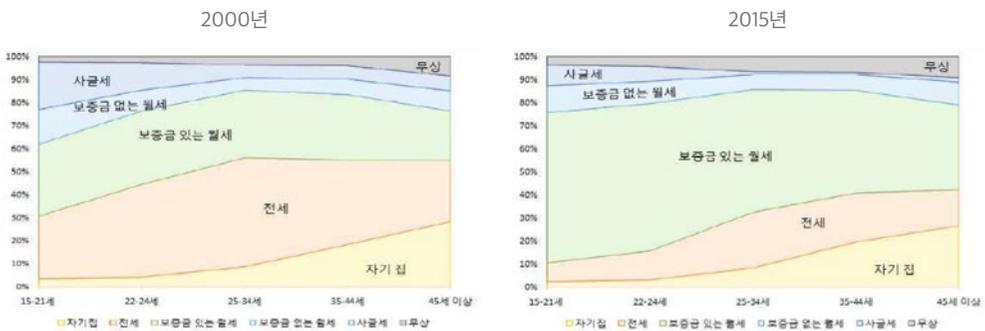
<그림 5>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거 점유형태별 비율



자료: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9.

미혼 1인가구의 경우는 더욱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림 6>은 미혼 1인가구의 주거 형태별 연령별 분포로 주거 문제가 미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25-34세 미혼 1인가구의 주거형태에서 '전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소득에서 월세로 추가적인 주거비용이 더 지출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미 2010년대부터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거 불안정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태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혼 1인가구의 자기집 소유 비율은 2000년과 20015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림 6> 미혼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택 점유형태



자료: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43.

5. 1인가구: 중첩된 사회적 위험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의 문제는 단적으로 빈곤 문제이지만, 빈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오래된 사회적 위험'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복지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하여,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시장과 복지라는 두 차원의 제도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대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개인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만혼과 비혼), 가족관계의 변화(이혼과 별거, 기러기 가족 등),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경제적인 차원의 빈곤이나 소외로 이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대응에 따라서 달라진다.

<표 1>은 성별, 고용지위별 빈곤율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빈곤율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와 1인가구 여부에 따른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위가 크게 빈곤율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비율은 여성 1인가구인 경우에 더 증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일용직인 여성 1인가구의 빈곤율은 47.8%에 달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실직자, 무직자, 학생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주의 가구는 대단히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인 경우에도 1인가구는 2인 이상의 다인가구에 비해서 2~3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 자영업자로서 홀로 살고 있는 경우, 35.2%가 빈곤층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표 1> 성별, 고용지위별 빈곤율

	남성		여성	
	다인 가구	1인가구	다인 가구	1인가구
정규직	.038	.111	.059	.116
임시일용직	.136	.234	.216	.478
고용주	.047	.147	-	.037
자영자	.101	.191	.152	.352
가족종사자	.134	-	-	-
특수고용직	.070	.123	.029	.037
기타*	.291	.619	.338	.690

*기타는 실업자, 무직자, 학생 등 포함

참고: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2020

한국에서 가구소득 수준은 가구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빈곤율 이하이다.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율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한다. 2020년 한국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은 2092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18.1%가 빈곤가구에 속하였다.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이 2161.9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1인가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가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인가구의 43.1%가 빈곤가구에 속하였다. 2인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은 1인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빈곤율도 19.2%로 1인가구보다 크게 낮았다.

<표 2> 가구원 수에 따른 평균소득과 빈곤율, 2019

가구원수	평균 소득	빈곤율
1	2161.9	43.1
2	4502.9	19.2
3	7338.8	8.4
4	8950.8	5.1
5	9821.1	4.4
6	9638.6	4.3
7	9266.2	10.8

참고: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2020)

가구소득을 성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에 높은 빈곤율은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남성 70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4.3% 정도로 전국 빈곤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빈곤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가구 빈곤율도 50대 후반부터 대단히 높게 나타나, 남성 가구주 가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 가구주의 연령이 60-64세인 경우의 빈곤율은 26.8%로 매우 높았고, 65-69세 35.8%, 70세 이상 67.7%로 70세 이상의 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절대 다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인가구는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체 가구 빈곤율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빈곤율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남성보다 워낙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 가구주 가구 연령별 빈곤율이 50세 이전까지는 남성 1인가구 연령별 빈곤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50세 이후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여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1인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가구주 성과 연령별 평균 소득과 상대 빈곤율, 2020

가구주	성과 연령	평균 소득	1인가구소득	빈곤율	
				전체가구	1인가구
남성	20-29	3812.8	2828.3	0.102	0.128
	30-39	6516.5	3757.0	0.077	0.128
	40-49	7824.1	3602.7	0.070	0.141
	50-54	8071.4	2686.0	0.085	0.189
	55-59	8086.3	2607.1	0.073	0.282
	60-64	6576.4	2341.9	0.091	0.276
	65-69	4919.9	1896.7	0.137	0.387
	70+	3332.1	1557.9	0.343	0.573
여성	20-29	3171.2	2642.3	0.163	0.187
	30-39	4551.7	3309.8	0.123	0.151
	40-49	4087.3	2946.3	0.180	0.194
	50-54	4564.9	2313.3	0.155	0.330
	55-59	4245.0	2320.3	0.207	0.315
	60-64	3258.4	1933.3	0.268	0.368
	65-70	2511.8	1853.4	0.358	0.431
	70+	1423.9	1143.4	0.677	0.733

참고: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2020)

1인가구의 경우, 자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주거비용 부담이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20-35세) 1인가구의 대부분이 '보증금 없는 월세'(49.15%)나 '보증금 있는 월세'(2.14%)의 형태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의 압박을 받는 청년들이 월세로 인하여 더욱 부담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6-49세 1인가구의 경우에도 보증금 없는 월세가 4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자가 거주로 25.17%, 보증금 있는 월세가 3.23%를 차지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더욱 불안정한 주거를 보이는데 남성의 경우, 월세 비율이 49.21%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53.70%로 남성보다 더 월세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 노인 1인가구인 경우에도 절반 정도(49.73%)가 불안정한 주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년기 1인가구는 절대적으로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거도 불안정하여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남녀 모두 40대 후반부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1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 대책의 부재로 곧바로 이어진다. 한국사회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인가구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차원의 문제도 안고 있다. 심리적인 고립과 더불어 각종 신체적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우울감과 육체적인 불건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처럼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다 사망하는 노인 고독사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1인가구 문제는 만혼이나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6. 1인가구 대응 정책 과제

1) 생애주기별 대책 필요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와 노년기 1인가구는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기와 중년기 1인가구의 경우,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된다. 주거 문제의 해결과 함께 노동 시장에서의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해야 근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년 1인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더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남성과 여성의 대책이 달라져야 함

1인가구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성 1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부조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부조를 강화하여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여성 1인가구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3) 개인 저축 프로그램 지원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저축을 보조해 주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

부 지원 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점차 주거 불안정 해소와 함께 가구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혼 남성 43%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박시내, 2021).

4) 1인가구 주택 확대

저혼인 시대의 문제는 청년(20~44세) 1인가구의 74.6%가 취업을 하고 있지만, 59.3%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텔과 같은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곳에 거주한다. 공영 혹은 준공용 1인가구 주택을 공급하여, 1인가구가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은 학업과 고용의 안정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5) 농촌 노인 1인가구의 문제 대응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촌 1인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마을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농촌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더불어 도시 재생과 견줄 수 있는 '농촌 재생'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시내 (2021), “저 혼인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 <KOSTA 통계플러스> 봄호 26-46.
- 일본 통계청 (2021), 일본통계연감 (제70회).
- 통계개발원 (2019), 한국의 사회동향.
-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
- 통계청 (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12월 8일 발표.
- Lesthaeghe R.(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2010;36:211- 51.
- Lesthaeghe R. (201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eptual map for the understanding of late modern demographic developments in fertility and family formation.”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179-218.
- Lesthaeghe R, Surkyn J. (2008) *When history moves on: The foundations and diffusion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deation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family change.* pp. 81 -118
- Snell, K. D. M. (2017). “The rise of living alone and loneliness in history,” *Social History* 42:1, 2-28.
- UNSD (2020), *Demographic Yearbook*, New York: UNSD.

2021년 50+정책포럼

기조발표 2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수요 분석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전문위원회 위원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논문/저서

2021. 50+정책분석 보고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중장년층 생애설계상담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수요 분석

송민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1.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

「건강가정기본법」제3조2항2에 따르면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2015년 이후 주택총조사 결과 주된 가구형태는 다인가구가 아닌 1인가구로 나타났다.¹ 이는 그동안 1인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2019)를 살펴보면, 2019년 서울시 전체 1인가구는 1,299,787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는 251,406명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중 청년은 비혼, 만혼, 중장년은 이혼 및 별거, 기러기 가족, 노년은 사별 등을 주 원인으로 하여 1인가구가 형성된다. 가족을 기준으로 1인가구 형성원인을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는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하고, 중장년 1인가구는 가족 해체로 인해, 노년 1인가구는 가족 구성원의 탈락으로 인해 형성된다.² 중장년 1인가구는 2000년대 이후 이혼율의 증가³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기러기아빠의 등장, 중장년 미혼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증가세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1인가구 형성원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1인가구로 살아가며 겪고 있는 어려움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볼 때 1인가구의 특성은 세대별 차이를 갖는다.

이 중 중장년층은 청년을 거쳐 노년층으로 가는 세대로서 청년 및 노년층 1인가구와 공통되는 특징도 있고 차별적인 특징도 갖는다. 1인가구의 특성상 가구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나 적적함 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장년은 은퇴를 준비하고 경험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를 거쳐야 하므로 경제적 상황,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서 중장년층이 겪게 되는 변화들은 온전히 본인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1인가구에 있어서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

2 박미선·조윤지(2020). 연령대별·성별 1인가구 증가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국토정책Brief,749.

3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생계를 책임져 주거나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구성원이 없는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도 취약해질 수 있다. 퇴직연령이 빨라지게 되면서 중장년 1인가구는 퇴직 후 연금수령 전까지 스스로의 생계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부담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부재하므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기러기아빠나 이혼, 사별 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 우울감이나 상실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중장년 남성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사회적 관계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단절도 이뤄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느라 1인가구가 된 중장년은 충분한 노후준비나 사회적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감 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

중장년은 생애주기 상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경험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세대이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이혼, 별거, 사별 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청년 및 노인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대이므로 생활방식도 다른 세대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중장년 1인가구는 이러한 중장년의 특성과 더불어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 취약성을 갖는 1인가구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중장년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세대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 일상생활에서 겪게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심층적 파악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장년 1인가구의 실태

1) 일상생활

중장년 1인가구는 의사소통이나 교류상대,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부재하여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적막함, 외로움, 우울감이 존재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의사소통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중장년 외로움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며, 가족과 생활하다가 이혼과 사별, 기러기아빠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경우는 외롭거나 쓸쓸한 감정을 더욱 느끼게 되기도 한다. 경제적 혹은 건강상 이유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도움을 줄 누군가가 없다는 감정들은 우울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너무 외로우니까, 일단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TV하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

다고 하거든요...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대화방법을 모르니까. (3-8, 여성, 60대)

(사별 후)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냥 나가기도 싫고 마음이 우울하나... 그렇더라고요... 심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어디 가서 풀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더 그래요. (8-21, 여성, 60대)

생활이 제가 혼자 살게 되는 것으로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외로움이라든가 심심함이라든가 그런 게... 집 안 이 적막하고 사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좀...(2-5, 남성, 50대)

제가 지나보니까 아! 국가에서 정책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하면 알아보고 도움을 줬으면 그렇게 우울증까지 안 걸리고 생활이 자유로울 텐데...(12-34, 여성, 60대)

1인가구는 오롯이 본인 스스로 무엇이든 다 해결해야 한다. 이로 인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집안일, 경제적 문제, 기타 서류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해결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가족, 친구, 지인 등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고독사 위험에 대한 인식도 중장년 1인가구에게는 큰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거나 왕래가 있는 친구, 가족을 떠올리기도 하며, 112나 119 등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차라리 편하게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집에 뭐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못 할 때가 있더라고요. 판단을 못 할 때도 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7-19, 여성, 60대)

몇 년 전에 제가 오밤중에 급성맹장이었어요. 어쨌든 119를 부를 생각을 못 하고 정말 기어서 나가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싸인이 없어서 마취하고 나서 아침까지... 수술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는 싸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4-10, 여성, 50대)

고독사가 너무 두려워서 존엄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짜 알아봤는데, 저는 벌써 기증하는 거 다 써 놔어요. 인체기증. (4-10, 여성, 50대)

저는 112를 눌러요. 112가 제일 편해요. 112를 누르면 경찰차가 바로 오더라고요. 위치 추적을 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그래서 아! 이 CCTV가 진짜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4-9, 여성, 50대)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제 옆집에 살지는 않잖아요. 아파트 위 아래층이나 옆집에 살면 바로 연락할 수 있지만, 그

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119에 전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3, 여성, 50대)

또한 중장년은 생애주기 특성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이다. 1인가구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생계유지에 있어서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1인가구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등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비상시를 대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하는 등 건강에 신경을 더 쓰는 편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몸이 아플 경우 경제적 문제와 자신을 케어하는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비중 있게 고민하게 된다.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게 꾸준하게 가는 나이가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혼자라는 것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느 순간 장기간으로 가는 시간이 된다면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은 있죠. (7-17, 남성, 50대)

저는 형제가 없고 그래서 쪽 혼자였었고, 그래서 제 몸에 대한 것을 중요시 했었어요... 나는 내 몸이 전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2-33, 남성, 50대)

거주지에 대한 안전 문제는 중장년 남녀 1인가구 모두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었다. 1인가구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인식 하에 거주지에 대한 안전 및 치안에 대한 걱정이 존재하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1인가구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도둑맞았어요. 왜냐하면 도둑이라는 게 혼자 사는 거를 알고 와요. 도둑이 내가 빈 시간을 알고 오더라고요. (1-1, 남성, 50대)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이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일단 제가 아파트에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아닌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무조건 아무튼 집이 안전해야 해요. (1-3, 여성, 50대)

제가 독신세대로서 가장 위기와 불안함을 느끼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 그래서 저기 어두컴컴한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동네는 싸긴 싸겠죠. (5-12, 여성, 60대)

2) 사회적 관계

중장년 세대는 관계의 확장을 위해 나이, 가족, 직업 등 개인적 정보에 대한 교류를 관계의 주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중장년 1인가구는 1인가구에 대한 편견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기도 한다. 1인가구를 이기주의, 힘든 사람,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 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 1인가구임을 드러내지 않거나 교류를 단절하게 된다. 또한 퇴직 후 조직 생활의 단절이 사회적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그나마 좋아졌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야. (1-1, 남성, 50대).

왜 이렇게 남편 얘기를 통 안 해? 이러는데... 관계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고요 (5-13, 여성, 60대)

제가 눈 지가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감방같아요... 사회친구들도 끊기고 동네친구들 끊기고 다 끊겨요(3-8, 여성, 60대)

또한 1인가구로 생활하다 보니 안전문제나 편견으로 인해 본인에 대한 노출 등을 꺼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보다는 익숙한 관계를 선호하기도 한다. 익숙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장년 1인가구는, 교류대상을 처지가 비슷한 중장년 1인가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제 이름 석자를 알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분은 어떻게든 아니까 오픈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동네 분이나 옆집 앞집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12-34, 여성, 60대)

제가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이게 오랜 시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움이 앞선다고 할까요? 제가 주일에 성당에는 가는데, 그런데 활동은 안 해요. 미사참여만 해요... (1-2, 여성, 50대)

오늘 다 처음 뵈고 성격도 다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점이 미혼 1인가구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저 상황이 아닌데... (1-3, 여성, 50대)

3) 생계와 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에게 생계유지와 노후준비를 위한 일자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장년 1인가구는 나이, 경력 등에 대한 제약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50대 이후에는 재취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취업에 대한 도전과 실패는 중장년 1인가구들의 생활이나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풀타임 생계형 일자리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일자리, 정부지원일자리 등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경쟁률이 높은 경우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금이 너무 적은 일자리들은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저는 대출을 3년째...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중부여성발전센터에 5년 전부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job 잡아라! 그것도 하고 상담도 받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5-12, 여성, 60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해 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를 넣는다가나 할 때 나이 때문에 다 커트를 당했을 때 상실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8-20, 여성 60대)

내가 굳이 몇백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몇십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건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 갖고 내가 생활을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통장에 있는 돈은 덜 빼 먹잖아요. (3-8, 여성, 60대)

사회공헌일자리나 보람일자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고 페이가 적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전기요금 내고 의료보험 내고 차비하고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식비도 안 나오는 거야. (12-34, 여성, 60대)

중장년 1인가구는 퇴직 후 연금수령 전까지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연령 상의 이유로 재취업이 쉽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근로시간이나 유형 등에 제약을 가지게 된다.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중장년 1인가구는 연금수령 전까지의 경제활동과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개인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기간이 몇 년이 남아 있어요. 얼마 안 되

지만. 어쨌든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
튼 뭔가가 있어야 되요. (1-3, 여성, 50대)

주택연금도 집 있는 사람들 얘기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을 64세가 되어야 받거든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이지만 60세면 거의 못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한 4, 5년간의 중간에 갭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
가 하는 고민은 상당히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때는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죠. (1-1, 남성, 50대)

4)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

중장년은 퇴직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나이이므로 중장년 1인가구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경
제적 문제로 나타난다.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득원이 필요하지만 건강 상의 문
제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생계를 유지할 대처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아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 등이 상당히 높다.

자꾸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초조감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심해요. 노후준비라는 것,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초조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사회는 나를 인정을 안 하는
데 노후는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1-1, 남성, 50대)

제가 노후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노후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여건상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 나름대로 가장 큰 고민이고, 어떻게 해서 한 마디로 앞으로 건강
하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게 문제잖아요. (12-34, 여성, 60대)

부모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데, 노후가 되니까 제일 막막한
게 생계 유지가 제일 막막해요. (4-9, 여성, 50대)

내가 나를 부양해야 되고 나도 나에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꼭 소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건강이나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험이라도 들어 놓든가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일
을 해야 되니까. (1-3, 여성, 50대)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은 중장년 1인가구에도 걱정거리로 작용한다.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으며, 경제적 위기상황 시 주거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다.

저는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전세를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파산을 한다거나 아파서 뭐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1-1, 남성, 50대)

전세로 간다고 하면 그 전셋집 맨날 올려줄 때마다 목돈을 마련해야 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목돈을 만들어 놔야 하니까. 예비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주거가 제일 걱정되거든요. (11-32, 여성, 60대)

청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집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청년주택처럼 공유주택이라던가 뭔가 있으면... 우리는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65세가 넘어야 돼.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좀 좋겠어. (11-32, 여성, 60대)

또한 중장년 1인가구는 노후문제와 관련하여 삶의 마무리 단계도 생각해 보게 되는 나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나 가족, 친구 등에게 폐를 끼치거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스로 건강관리, 요양원, 장기기증 등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유골기증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신청조차 쉽지 않으며, 보호자 역할을 해줄 가족이나 친지 등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왕래가 없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다.

고독사가 너무 두려워서 존엄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짜 알아봤는데, 외국에 나가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뒤를 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벌써 기증하는 거 다 써 놔요. 인체기증. (4-10, 여성, 50대)

내가 300만 원은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누가 발견해도 나를 좀 잘 뒤처리를 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은 장기기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례를 치뤄 준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유골까지 기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5-11, 남성, 60대)

나는 80이 되면 형제들 신세 안 지고 요양센터 갈 곳을 정해 놔어. 내가 80이 되면 간다고. 왜냐하면 치매기가 있건 없건. 치매기가 없으면 본인부담으로 1년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5-14, 여성, 60대)

3. 중장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1) 상담

가구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느끼는 우울함이나 외로움 등의 감정들은 상담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중장년 1인가구가 느끼는 상담의 필요성은 나의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의 경우 동년배 상담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거나 조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같은 느낌으로 고민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어 상담 사업 시 동년배 상담을 강조하고 있다.

심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럴 때는 어디 가서 풀고 그래야 되는데... 심리상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겠고... (8-21, 여성, 60대)

제가 처음에 와서 김OO 선생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이틀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니, 처음 갔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떤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분한테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요... (3-7, 남성, 60대)

패배감과 좌절감이 들었거든...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쪽 얘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많은 방향 제시와 일자리와 용기를 주셔서 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5-11, 남성, 60대)

일단은 여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터놓고 했어요. 혼자 살고 있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받는 느낌이 들었고, 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통한다! 그래서 교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26, 여성, 60대))

2) 사회적 관계 개선

중장년 1인가구는 미혼, 이혼, 사별, 기러기아빠 등 형성원인이 다양하므로 사회적관계의 확장을 위해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기도 한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한 편견의 경험으로 인해 공통의 목적을 가진 모임을 선호하거나 적적함을 달랠 수 있도록 동년배를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미혼 1인가구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특성에 맞게끔 짜여져서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3, 여성, 50대)

저는 인생학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좋았던 게, 거기는 나이를 묻지 않고 직업을 묻지 않고, 정말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5-13, 여성, 60대)

아무래도 저희 또래에 만나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비슷한 사람들이끼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1, 남성, 50대)

같이 노후를 공유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서로 알아가면서 만날 수 있고,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독거노인도 많고 독거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서로 인생이모작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남은 인생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4-9, 여성, 50대).

3) 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가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이나 취업지원 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일자리 지원 시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 우대가 필요하며, 중장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혼자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면 좋겠어요. 저번에 00에서 일자리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탈북민, 저소득층들은 그런 우대조건들이 있으니까... (10-28, 여성, 60대)

완전히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것, 한 6시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12-34, 여성, 60대))

저는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중년일자리로 좀 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때 문에 지원조차 안 되더라고요. (7-18, 여성, 50대)

혼자 사는 분들 위주로 먼저 취업을 선정, 선발할 때 가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잘 사는 분들이 (사회공헌일자리)취업을 해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아요. (5-11, 남성, 60대)

4) 건강복지분야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건강복지분야 정책 수요는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고독사의 예방, 돌봄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나타난다. 사회적관계 단절이나 외로움의 가중, 고독사 위기에 처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경제적 위기상황 시 도움 받을 곳이 없어 곤경과 절망에 처해있는 중장년 1인가구들을 위해 국가와 정부 차원의 경제적 긴급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연령층에 맞게끔 최소 체크를 해서, 뭐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발송하거나 또는 뭐를 하던가 해서 유도를 해서 ...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라인을 갖춰 줬으면 좋겠어. (10-30, 남성, 60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 연결망이 있었으면 싶은 거예요. 꼭 보건소나 그런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네! 최소한 2, 3일 안 받으면 그쪽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5-13, 여성, 60대)

국가 대출이나 사회적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가구일 때는 조금 그런 망이 있을 때 확대를 시켜 준다거나, 1인가구만의 정책 부분에 적용을 시켜 준다거나. 위기적인 상황에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다양한 제도나 그렇게 보완을 해 주면 어떨까?(10-29, 미혼, 여성, 50대)

거주지역 안전과 치안 문제 등은 사회적관계, 주거비에 대한 부담 등과 연계되어 공유주택 혹은 주거공동체 등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를 확장하고 고독사와 관련해서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상호돌봄 가능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므로 공동체 주택이나 공유주택 지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큰 집을 하나 얻어서 같이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큰 집에서 임대료를 똑같이 나눠서 내더라고요. 방은 따로 지내고 거실에서 식사는 같이 하는 거야. 외롭지 않게. (4-9, 여성, 50대)

1인가구 뭐 여성주차장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공동주택을 마련해 주세요... 집은 처리하고 그거를 보람 있게 쓰고 싶어요. 저는 정부에 공동주택을 요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재정도 조금 쓰면서 살 수 있어요. (5-12, 여성, 60대)



2021년 50+정책포럼

주제발표 1-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및 정책 제안

박승곤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중앙대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졸업)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수료)

경력

(현)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운영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논문/저서

2021.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021. 중도시각장애노인의 시각상실과 삶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0. 서초구 청년1인가구 실태 및 요구조사. 서초구청.

2019. 강서구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강서희망나눔재단.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및 정책 제안¹

박승곤 영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특히 주목해야 할 집단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까지 남성 1인가구 증가율은 195.4%로, 120.9%를 보인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크다.² 그중 45세 이상 남성 1인가구의 증가치는 두드러진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의 강제 은퇴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독거남이 함께 늘어났다.³ 이들은 실업, 이혼, 기러기 가족, 건강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⁴ 또한, 노인이나 여성 등의 집단에 비해 공적 지원이 부족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은 더 높다.⁵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⁶ 흡연과 음주,⁷ 만성질환감염률 등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소득의 불안정⁸과 주거⁹까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취약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종교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¹⁰ 이러한 감소는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심한 경우 고

1 본 발제는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에 게재된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에 관한 사례연구'를 기초로 수정한 것임.

2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3 매일경제, 2020년 6월 28일. 「베이비부머 26만명, 코로나궤 `강제은퇴」.

4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키다」. 정책리포트, (30), 1-18.

5 박영란, 홍백의, 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6 중앙일보, 2019년 9월 2일. 「혼밥·혼술 1인가구 건강 더 안 좋다」.

7 이하나, 조영태(2019).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 보건사회연구, 39(2), 380-407.

8 최석현, 김재신, 2017.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VII」. 이슈&진단, 292, 1-26.

9 한지희, 정소이, 박준영, 2011.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거실태 분석 -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1(2), 161-162.

10 통계청, 2019.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

독사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니는데, 실제로 40대와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보다 많았다.¹¹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는 30대에서 50대 남성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외로움이라고 논의하기도 하였다.¹²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을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주목하였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인 중장년 남성 1인가구가 연구의 주요 대상자들이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개별면접과 전문가 집단 인터뷰(이하 FGI)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별면접의 대상은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며 5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의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 남성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다. 강서구는 취약계층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며 1인가구의 수 역시 많다.

개별면접은 총 38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25명이 최종 조사에 참여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였다. 대부분은 10년 이상 홀로 생활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FGI는 실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8개 각기 다른 시설 및 기관에 근무 중인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4명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 4명이었다. 주민센터의 담당자는 서울시의 고독사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복지관의 담당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다년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III. 연구결과

1. 건강 영역(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건강의 악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취약하였다. 이는 주변인들의 도움, 지원의 부족으로 연결되며, 동시에 건강의 악화로 이어진다. 일상생활 가운데 기초적인 영역인 가사는 현재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가장 취약한 영역 중 하나이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요리와 청소 등의 가사 경험

11 중앙일보, 2019년 9월 2일. 「혼밥·혼술 1인가구 건강 더 안 좋다.

12 정인, 강서진, 2019.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며, 가사를 위한 도구 역시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간편식이나 인스턴트를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생활은 불균형한 영양으로 이어지며,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이나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일부 환경이 개선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타인의 도움으로 구축된 건강한 환경 역시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가사의 문제는 되돌이표와 같이 반복 되는 것이었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서 유독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반적인 혼술 정도가 아닌 중독의 위험성이나 실제 중독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타인과 만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음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식사를 하기 보다 아예 술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혼자 살다보니 집 안에서 스스로 절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중독으로 이어졌다.

2. 경제 영역(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과 관계 맺기)

FGI에서 특히,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의 필요를 제안하였다.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영역의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였다.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의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원봉사의 영역에서도 일부 유급을 인정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응답 중 하나는 소득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근로의 보람 혹은 사회적 관계 맺기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를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관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관계 영역(관계 맺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고독사)

건강과 경제 등의 문제보다 어떠한 점에서 더 심각한 것이 관계 및 심리적인 영역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홀로 보내고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극단적인 외로움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혹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를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주변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적극적인 참여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이었다.

심리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년 남성 1인가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매우 취약하였다. 자신의 어려움을 말한다는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일부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들어주는 이들이 부재하거나 매우 적다고 밝혔다. 온종일 집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만, 갈만한 장소가 없어 산책을 하거나 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타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거부감 역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였다.

사회적 관계 맺기의 부족은 정보 접근의 취약함으로 연결되었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고 한 이들도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와의 접촉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과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숙하다고 하였다. 사업을 진행할 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말하였다. 실제로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많은 관련된 사업이 폐기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절실함도 일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고독사나 외로움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더 나아가 이들이 관계 맺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동시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약한 집단이라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었다. 때문에 관계 맺기를 해주는 기회가 실제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응답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면, 중장년 남성 1인가구 간의 모임으로 관계 형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조모임은 자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욕구가 즉각 반영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며, 그에 따라 보다 활발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이 현재 진행하는 자조모임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4. 건강, 경제, 사회관계 간의 관계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 건강, 경제, 사회관계는 상호 관련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이 좋지 못하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빈곤은 식생활에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게 만들어 다시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신이 건강이나 경제활동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타인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다양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할 수 없도록 한다. 실제적인 도움을 지닌 정보를 적절히 획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이나 건강활동에서 취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 건강의 문제가 경제활동의 부족으로, 그에 따른 건강을 위한 지출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단절로 연결되고, 다시 정보획득 활동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경

제활동 및 건강의 악화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중장년 남성 1인가구는 사실상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시·군·구청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의료기관, 보건소, 일자리센터, 도서관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사정부터 물질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함께 공유되고 관리된다면,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는 등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어 복합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통합적 접근은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접근도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해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행, 문화, 스포츠, 봉사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스스로 모임을 형성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초기의 모임을 형성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에서 적극적인 홍보, 동기부여, 장소 제공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축제, 주기적 문화공연 등의 기회 제공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조모임은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능동적인 삶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건강의 영역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0여 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실시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건강정보의 전달 및 관리, 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대상별 맞춤 관리가 손쉬워지며 건강뿐 아니라 고독사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다. 특히, 정보의 부재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가 비대면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접근한다면 전문적인 동시에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해 일상생활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근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차츰 늘려가야 한다.



2021년 50+정책포럼

주제발표 1-2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사회적 문제

김미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학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학 상담심리전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 명상전공

경력

(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여주대학교 힐링센터(학생상담지원센터) 센터장

여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장

여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출강

논문/저서

수용전념집단상담프로그램이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 대상 가족상담 사업모델 개발

가족상담 관련 기관의 가족상담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인터넷 과몰입 예방 가족통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명상기반 수용전념치료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사회적 문제

김미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1. 중장년 1인가구, 그 쓸쓸함에 대하여

“위로는 부모부양, 아래로는 자녀 양육 그러나 만만치 않은 세상”

중장년 세대를 우리는 낀세대라 부르며, 이들 삶의 고단함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중장년 1인가구는 어떨까?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¹에 의하면 중장년기는 외로움의 문제, 남성 중년의 취약해지는 관계망, 이혼 및 사별 초기의 사회적 고립, 유사집단이 아닌 다른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 고독사에 대한 높은 불안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장년 1인가구는 ‘외로움과 쓸쓸함’일까?

2. 경기도 중장년 1인가구 심리상담사업이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2월, “1인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기치 아래 <경기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6개 분야 18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그중 사회적 단절이 가장 심각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중장년 수다살롱, 중장년 1인가구 공동체 공동부엌지원과 함께 <경기도 중장년 전화심리상담서비스>를 기획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 5월부터 만 50세부터 64세 미만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의 전화심리상담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외로움, 고립 극복 등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 <경기 중장년 전화심리상담서비스: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1 노경희 외,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18. 「경기도 1인가구의 삶의 질 연구」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상담사업은 비대면 전화상담을 주축으로 전문심리상담 및 사례관리와 온라인 심리검사, 마음돌봄-사이돌봄 관련 집단상담 및 다양한 마음돌봄 관련 특강을 마련하고 중장년 관련 기관으로 ‘찾아가는 마음돌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사업인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상담’은 개인적인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심리상담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대면상담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의 제약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비대면 전화상담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마음돌봄상담의 주요 내용은 전문심리상담을 기반으로 우울, 자살, 중독, 폭력 및 학대 등의 위기관리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상담, 복지정보 제공 및 자원연계상담인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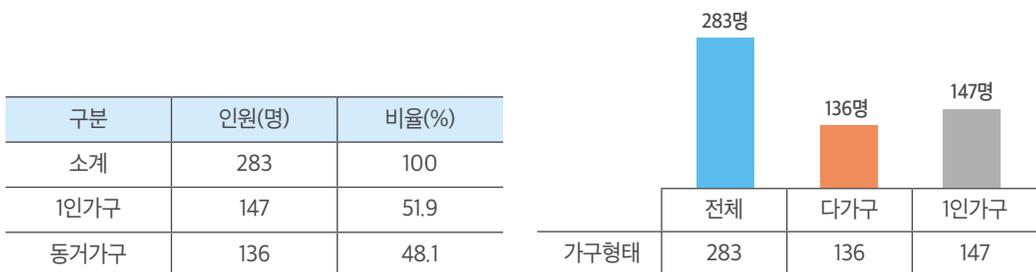
주요 인력으로는 심리상담 전공과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전임상담사 및 위촉상담사 6인, 사회복지 전공의 사례관리사 1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 내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상담은 1회 50분 상담을 기본으로 하며, 10회기~16회기의 단기상담으로 진행된다.

당초, 본 사업은 전임상담인력 6인과 사례관리인력 1인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인력 채용을 마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부터 150여 명에 달하는 상담의뢰 건이 폭증함에 따라 긴급하게 전문심리상담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다.

3. 창(窓) 하나, 마음돌봄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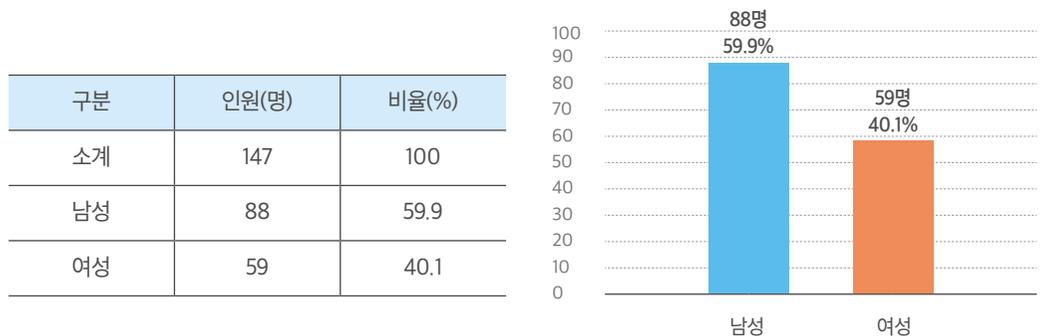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상담은 9월 말 기준 283명이 주 1~2회 상담으로 1,054건을 실시하였고, 이 중 1인가구는 147명으로 전체 참여 인원의 51.9%에 해당한다.

<표 1> 중장년 마음돌봄상담 가구 형태(실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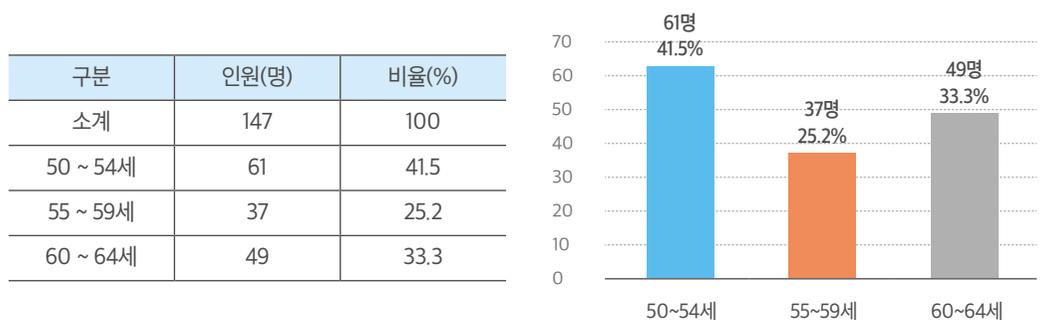
성별로는 남성 59.9%, 여성 40.1%로 여성보다 남성 참여율이 19.8%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타 시·군 노인상담의 경우 남성이 29%, 여성이 71%이며, 경기도 24시 노인상담의 경우 남성 38.9%, 여성 61.1%인 것으로 볼 때 중장년 남성의 심리상담 참여율이 여타의 상담과는 성비가 매우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다.

<표 2>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상담 성별 분포(실인원 기준)



상담이용 연령대는 50세~54세가 41.5%, 60세~64세가 33.3%, 55세~58세가 25.2%의 순으로 중장년 초기 연령대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중장년 마음돌봄상담 연령 분포(실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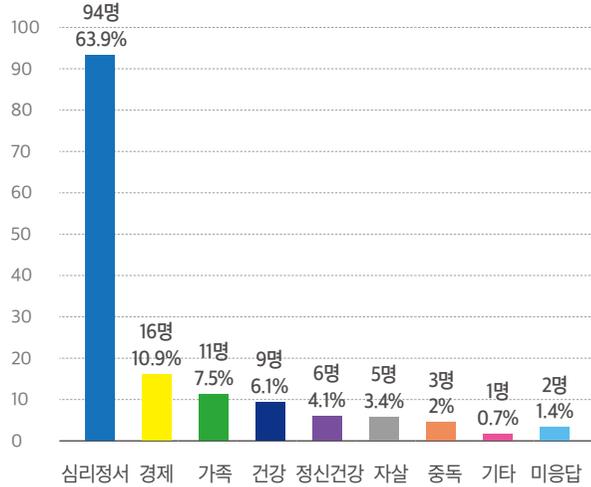


상담에서의 주호소문제는 외로움,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심리·정서문제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성별에서, 전 연령대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순위로는 심리·정서 63.9%, 경제 10.9%, 가족갈등 7.5%, 건강 6.1%, 정신건강 3.4%, 자살 3.4%, 중독 2%, 기타, 무응답 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상담 주호소문제 분포(실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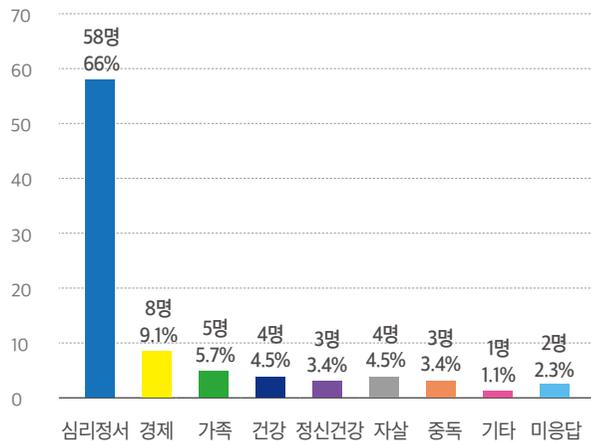
구분	인원(명)	비율(%)
소계	147	100
심리정서	94	63.9
경제	16	10.9
가족	11	7.5
건강	9	6.1
정신건강	6	4.1
자살	5	3.4
중독	3	2
기타	1	0.7
미응답	2	1.4



특이점으로는 가족갈등에서 여성이 10.2%, 남성이 5.7%로 나타나 가족관계에서 여성이 더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자살 관련은 남성이 4.5%, 여성이 1.7%로 남성이 자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는 향후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술, 도박, 게임 등 중독문제는 여성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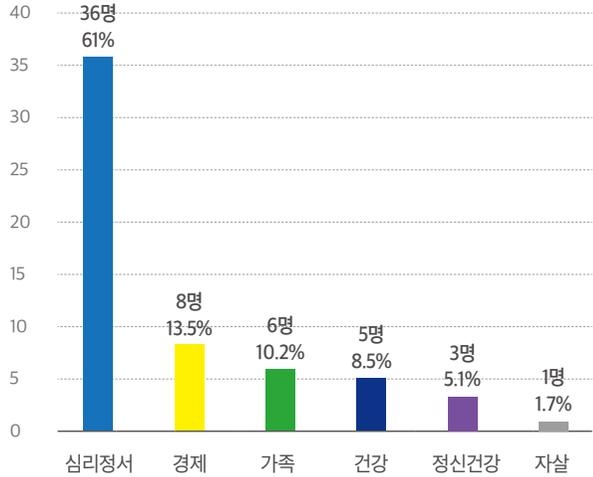
<표 5>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상담 주호소문제 분석(남성, 실인원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소계	88	100
심리정서	58	66
경제	8	9.1
가족	5	5.7
건강	4	4.5
정신건강	3	3.4
자살	4	4.5
중독	3	3.4
기타	1	1.1
미응답	2	2.3



<표 6> 중장년 1인가구 마음돌봄상담 주호소문제 분포(여성, 실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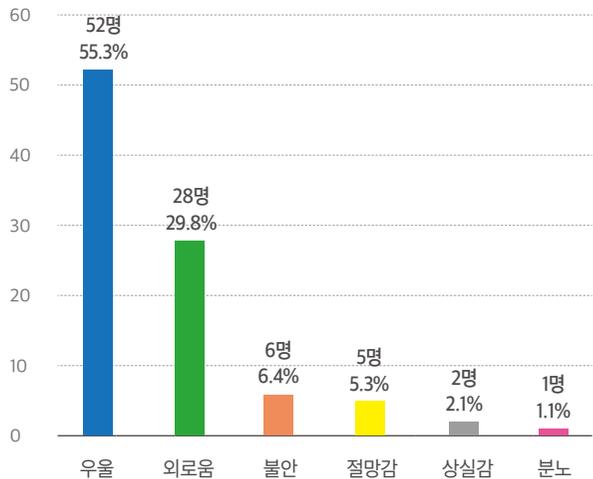
구분	인원(명)	비율(%)
소계	59	100
심리정서	36	61
경제	8	13.5
가족	6	10.2
건강	5	8.5
정신건강	3	5.1
자살	1	1.7



주호소문제의 1순위로 과반을 넘는 63.9%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울이 55.3%로 1순위이며, 1인 외로움은 29.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안 6.4%, 절망감 5.3%, 상실감 2.1%, 분노 1.1%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외로움과 우울 또한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7> 주호소문제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

구분	인원(명)	비율(%)
소계	94	100
우울	52	55.3
외로움	28	29.8
불안	6	6.4
절망감	5	5.3
상실감	2	2.1
분노	1	1.1



4. 창(窓) 둘, 마음돌봄상담 사례

중장년 마음돌봄 심리상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7월부터 예상을 훨씬 웃돌게 상담신청이 폭주하였다. 주로 경기도 내 시·군행정복지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로부터 의뢰되어 온 사례는 중장년 1인가구 및 취약가구로 이들의 전문심리상담을 요청하였다.

의뢰된 사례들은 경제적 취약, 실직, 건강 상실, 알코올 및 도박, 게임 중독,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대인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2~3개 이상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 우울, 불안, 분노, 좌절 등 심리 및 정신적 취약과 맞물려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마음돌봄상담사례 중 사회적 관계를 이슈로 가지고 있는 사례를 내담자 민감정보보호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가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 내담자: 이○○(남성, 55세)
- 상담경위: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 주호소문제: 외로움, 죽음을 앞당기고 싶다

사례2)

- 내담자: 허○○(남성, 52세)
- 상담경위: 자발적 신청
- 주호소문제: 이혼 그리고 실직 위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례3)

- 내담자: 윤○○(남성, 59세)
- 상담경위: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자발적 상담
- 주호소문제: 외로움과 혼자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 일상적 대화 필요

5. 중장년, 제 3의 인생 앞에 ‘위로받을 권리’

누구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과 아픔을 겪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좌절 끝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차이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또한 결

과로 빚어지는 사회적 영향은 무엇일까?

이미 중장년세대는 전문심리상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생애주기 속에서 예기치 않게 맞게 되는 위기상황에 심리상담이라는 특수한 전문 매개를 이용하여 이들의 아픔에 진정한 공감과 수용, 아울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희망을 실천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전문적인 위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위로받을 권리는 마련하자. 이는 중장년의 미래에 대한 디딤돌이 되고, 이들이 보다 밝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언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음이 웃어야 진정 웃는 거지요”

경기도의 중장년이 웃는 그 날까지 함께하는 마음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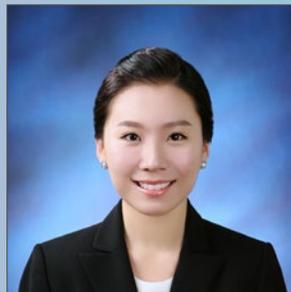
2021년 50+정책포럼

주제발표 2-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일자리 모델 제안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학력

서울대학교 교육학 전공 박사

서울대학교 교육학 전공 석사

경력

(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PM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진로팀 전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촉연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표준직업개발팀 전문위원

논문/저서

2021.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50+커뮤니티 역할 모색.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 서울시50+인생학교 고도화를 위한 운영모델 개발.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50+일자리 정책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일자리 모델 제안

임소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박사

중장년 차상위,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인가? 과연 이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일자리 모델을 어떻게 제안해 볼 수 있는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를 위한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에 대해 살펴보고,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와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송민혜 외., 2020)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임소현, 이영광, 2021)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1.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본 고에서의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는 만 40세부터 만 67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중에 가족 관계,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중장년 연령의 범위는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의 참여대상 조건에 근거하여 만 40세부터 만 67세까지로 설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차상위를 정의하였으며 1인가구는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2015년 이후 우리나라 주된 유형의 가구는 1인가구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해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은 약 38%,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은 약 31.9%로 나타났다(중장년 1인가구의 비율은 연령 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1인

가구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지역통계로 충청북도 청주시와 대전광역시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장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는 298,435명으로 전체의 약 30.4%이고, 서울시는 155,934명(전 연령)으로 약 15.9%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 측정된 수치이므로 차상위계층의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차상위계층 확인 수급자로 한정하여 중장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기준 중장년 차상위는 총 173,278명(117,188가구)으로 전년 대비 약 3만여 명, 2만 가구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울시는 총 37,702명(22,603가구)으로 전국의 약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대 측정의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연구에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의 수와 그 특성을 파악하지만, 수급자 현황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 원인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청년은 학교 및 직장으로 인해 대부분 1인가구가 되지만(67%) 중장년의 경우 개인편의 자유, 이혼, 별거 등에 따른 가족해체,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1인가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정책실, 2019). 비자발적 1인가구가 되는 경우 혹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1인가구가 되는 경우, 급격한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와 그들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중장년 1인가구는 혼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오히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집단이다. 가구 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중장년은 주된 일자리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활동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는데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이러한 기대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장년 1인가구와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결과 공통적인 의견은 '1) 연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2)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등의 노력을 했지만 이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3) 이러한 과정 속에 반복되는 실패 경험으로 인한 좌절감, 낮아지는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이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는 국가 차원의 지원 가운데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큰 소외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새터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중장년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1인가구와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의 공통적인 일자리 요구는 '1) 반드시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로 유연근로시간제 희망, 2)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우선 선발 혹은 일정 비율 할당제 적용'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생계형 일자리와 가교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다양한 근로 형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일자리,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 방안과 같이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당 사업이 수행 중이지만 다수의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보다는 주된 일자리 혹은 이전 일자리와 함께 경력 경로를 이어갈 수 있거나 앞으로의 새로운 경력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 일자리 활동의 기간 및 시간, 활동 내용, 연계되는 사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3.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3.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으로 구분되고 일자리 관련 지원은 차상위 자활근로와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제도)가 있다.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직접일자리 및 급여(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35만 원)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제16조(지역자활센터), 제18조(자활기업), 제15조의5(자활의 교육 등)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5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근로 능력 수준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일 자리를 지원하고, 2020년 기준 총 44,556명의 자활사업 참여자 가운데 중장년은 약 82.7%(36,850명)로 장년(42.4%), 중년(40.3%), 고령(6.6%)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서울시의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서비스형 5.2%, 근로유지형 2.5%, 시장진입형 1.7%, 인턴형 0.2%를 차지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4050세대(62.6%), 60대 이상 26.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수급형태는 대부분 조건부수급자이고 서울시는 전국보다 조건부수급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전국: 32.5%, 서울시: 62.9%)을 가지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전국 24.1%를 차지하지만 서울시는 9.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2020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직접일자리 전체	970,557 (100.0)	327,960 (33.8)	642,597 (66.2)	36,794 (3.8)	58,650 (6.0)	100,584 (10.4)	774,529 (79.8)
소득보조형 전체	870,163 (100.0)	287,255 (33.0)	582,908 (67.0)	13,696 (1.6)	30,007 (3.4)	72,780 (8.4)	753,680 (86.6)
자활사업	44,556 (100.0)	20,179 (45.3)	24,377 (54.7)	4,760 (10.7)	17,947 (40.3)	18,903 (42.4)	2,946 (6.6)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각의 합이 전체와 같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중장년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취약계층 취업촉진)을 통해 취업촉진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취업촉진 프로그램 중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을 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취업취약계층 가운데 중장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41.9%,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70.1%, 채용박람회를 49.4%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2020년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취업촉진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4-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역량강화 전체	228,518 (100.0)	97,677 (42.7)	130,837 (57.3)	119,895 (52.5)	44,845 (19.6)	51,029 (22.3)	12,745 (5.6)
집단상담 프로그램	192,205 (100.0)	89,944 (46.8)	102,259 (53.2)	108,863 (56.6)	30,739 (16.0)	41,651 (21.7)	10,950 (5.7)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3,712 (100.0)	5,229 (38.1)	8,482 (61.9)	2,639 (19.2)	4,117 (30.0)	5,493 (40.1)	1,462 (10.7)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채용박람회	263 (100.0)	167 (63.5)	96 (36.5)	132 (50.2)	101 (38.4)	29 (11.0)	1 (0.4)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중장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음영 처리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취약계층취업촉진.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서울시 중장년을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을 시범 운영하였다. 기존의 보람일자리사업에서 참여 대상의 연령을 만 40세부터 만 67세까지 확대하였고 서울형 차상위계층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중장년(은퇴자) 차상위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문헌 고찰을 비롯하여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적 강화를 통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일에 대한 의욕,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자활근로사업과 보람일자리사업에서 참여율이 낮은 공통적인 이유는 낮은 수준의 소득과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특히 보람일자리사업의 경우, 활동기간 및 시간이 희망했던 것보다 길지 않고 지속성이 낮아 경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활동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너무 짧고 시간도 애매해요. 활동 기간이랑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활동비이기 때문에 소득의 향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활동비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 분야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보람일자리는 일회성으로 지속적이지 않다보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아무래도 경력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죠.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연계도 무리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요구를 종합하여 다음의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을 도출하였다.

- | |
|--|
| 1안(단기):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 채용 우대조건 적용 |
| 2안(중기):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 |
| 3안(장기):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교육 및 일자리 연계 패키지 |

1안은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채용 우대조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변경된 채용 우대조건은 <표 3>과 같다.

<표 3>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 채용 우대조건(안)

구분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참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4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서울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57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월 60~100시간 + 최소 6개월 이상 (2안) 월 80시간, 월 100시간, 월 120시간 중 선택 + 최소 6개월 이상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5,020원=57시간×9,211원 1일 1만 5천 원의 교육실비, 상해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안) 매년 변화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안) 매년 변화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4대보험 적용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차상위 일정 비율 할당제 적용 중장년 차상위 특성 및 요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상태, 청소년 및 장애인 자녀 동거 여부, 부모 부양 여부 -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 - 주된 일자리 경험 및 전공, 희망 직무, 직업 가치관, 재취업에 대한 태도 등

주) 2022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사업에 적용 가능한 변경된 채용 우대조건은 파랑색으로 처리하였음.

2안은 중장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대상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 1안과 같이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채용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낙인 효과와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일자리를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년 차상위 특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경우 선불리 대상 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안은 기존의 보람일자리사업 혹은 자활근로사업에서 발전된 형태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사전에 수강한 다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일자리 모델이다. 인식 및 요구조사 결과, 중장년 차상위는 반복되는 실패 경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존감, 연령 제한으로 민간 노동시장 진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낮아진 자아효능감 등으로 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참여하게 될 일자리

관련해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태도 및 활동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전 교육을 희망하였다. 3안을 '실버인지지도사(예시)'에 적용하여 제안하면 <표 4>와 같다.

<표 4> 3안 일자리 모델 '실버인지지도사' 적용 예시

구분	내용	비고
1. 마음챙김 정서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챙김에 기반한 힐링 프로그램: 자아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고취 • 기초소양교육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공통과정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함	공통
2. 직무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혹은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연계 • (예시) 실버인지놀이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되는 실버인지놀이지도사 과정 수강 - 실버인지지도사 혹은 실버놀이지도사 등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리마인더 교육 실시 → 직무역량강화교육은 교육과정 횟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자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음	직무별 진행
3. 일자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사업 참여 • (예시) 실버인지놀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시니어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치매 예방 전문가 양성 - 활동인원: 예산에 맞는 인원 설정 - 사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활동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양로원,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 주요활동: 노인회상카드를 활용한 회상 치료, 그림책 인지 프로그램, 전래놀이를 통한 인지놀이, 원예치료, 음악치료, 운동치료, 실버 레크레이션 활동, 시니어 보드게임 등 - 수행기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기대효과: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활동의 경험을 더하게 되면 활동처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으로 활동 가능,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자원봉사단/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50+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봉사활동 수행 가능 	-
4.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경력 계획을 위한 상담(50+컨설턴트 연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실버인지지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제공자를 위한 정서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직무별 진행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모델(안)을 도출하기까지 인터뷰를 수행했던 중장년 차상위 일자리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중장년 일자리/차상위 일자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모두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견은 '중장년 차상위 특성 파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것이었다. 중장년 차상위 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 상태, 생계유지 및 자립 가능성, 자녀 양육 여부, 장애인 자녀 여부, 부모 부양 여부, 주된 일자리 혹은 이전 직업 및 경력, 보건 및 복지 지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특화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 사업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 교육과정 연계 일자리 등 사업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 일자리 모델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직까지 중장년, 1인가구, 차상위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그 데이터도 아직까지 다양하다고 이야기하기엔 어렵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중장년 1인가구, 중장년 차상위, 중장년 차상위 1인가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1년 50+정책포럼

주제발표 2-2

안심소득과 중장년 1인가구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학력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박사

시카고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석사

경력

(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성신여대 일반대학원장

논문/저서

2007. Industri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

2007.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 노동정책연구

2004. The Effects of Worker's Region of Birth on Labor Market Outcome in the Republic of Korea

1997. A Theory of On-the-Job Learning.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안심소득과 중장년 1인가구



2021. 11. 18.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

국내 노동시장의 현황

2

일자리 감소

- 통계청 취업자는 2020년 10월 1년 전에 비해 42만1천명(1.5%) 감소했으나, 주 40시간 기준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는 125만9천명(4.5%) 감소
- 3.0%포인트의 통계 거품
-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3년 전에 비해 228만 3천명(7.8%) 감소
-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2017년 10월-2019년 10월 사이 102만5천명(3.5%) 감소

소득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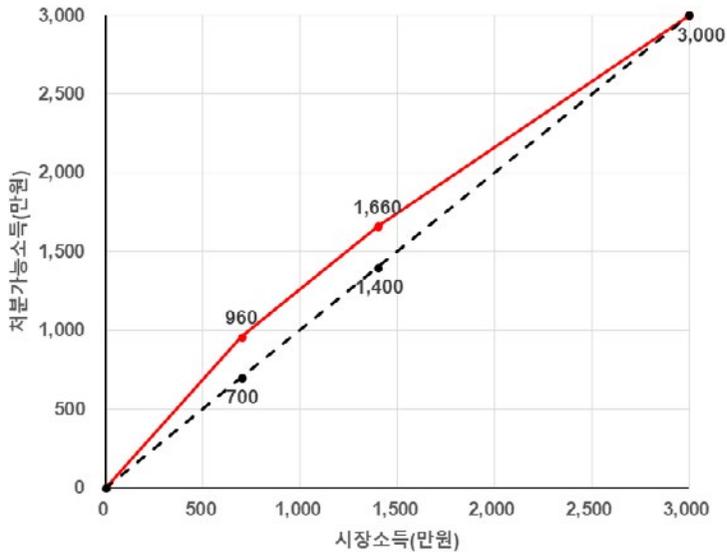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이 5.30으로 역대 최고, 2017년 2/4분기 4.73보다 0.57 증가
- 2017년 2/4분기 2019년 2/4분기 동안 실질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12.6% 감소, 2분위 3.3% 감소, 3분위 0.8% 증가, 4분위 1.8% 증가, 5분위 7.1% 증가
- 일자리, 소득격차 등 모든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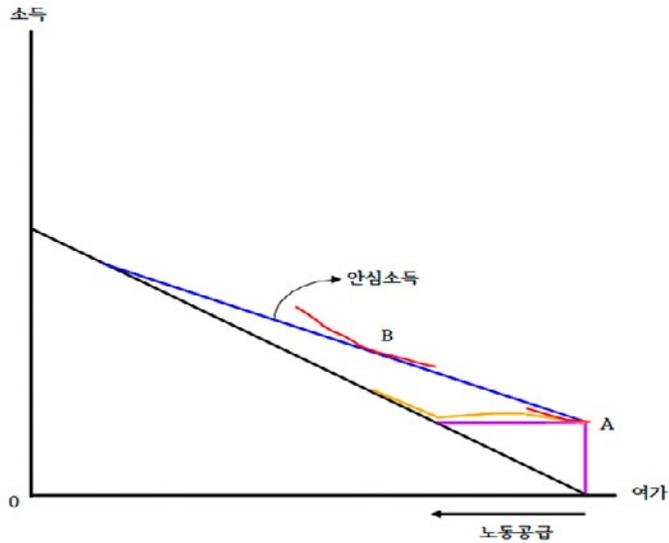
복지 예산 누수

- 현재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2020년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182조 원, **2023년에는 25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연평균 12%씩 증가)
- 복지혜택 전달 과정에서의 누수

근로 유인 저상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 유인의 저상**
- 근로소득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단독가구 가일을 해서 연 **1,600만 원**을 벌더라도,
-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700만 원) 및 주거급여(392만 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 차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55만원을 받아서 **처분가능소득이 563만 원**만 증가하므로,
- ➡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비율(50%)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 방식

- 1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2,334만 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함.

사례

- 연 **1,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생기면
1,600만 원+367 만원(미달소득 2,334만원-1,600만원=734만원의 50%)
+55만 원(근로장려금) = **치분가능소득이 연 2,022만 원**이 됨.
- 무소득이면 연 **1,167만 원**을 지원 받음.

대체되는 복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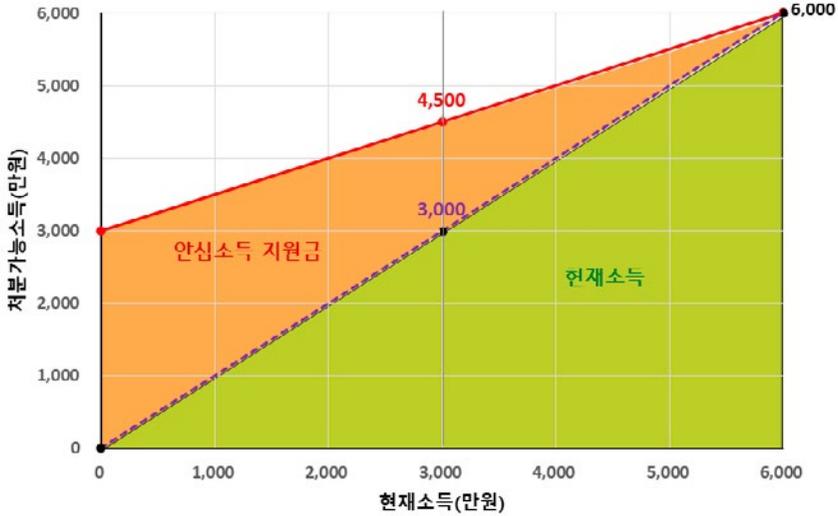
-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안심소득으로 대체함.

유지되는 복지제도

- 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 기초연금, 실업급여, 이동수당, 장애인연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다른 모든 복지·노동제도는 그대로 존치하고,
- 소득세제의 현행 **비과세, 감면, 공제제도** 등도 현행대로 유지함.

안심소득의 처분가능소득 증대 효과: 4인가구 기준(기존소득세제 유지)

7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4가지 효과

8

효과 1

대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폭 증대로 소득격차 감소 효과 탁월
- 지니계수 0.039(13%), 소득 5분위배율 1.38(27%) 각각 낮아짐

효과 2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 증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의욕 감퇴 방지

효과 3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예산 누수를 최소화

효과 4

유효수요 창출 효과 탁월
- 기본소득제와 달리 지원금이 전액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소요 제원

9

■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 (Pan-Welfare System)로 예산 절감효과도 큼.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추가예산

■ 2020년 현금성 복지지출의 폭증으로 안심소득제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연 **31조 원**으로 급감

2023년 복지·노동·보건
예산 증기액

■ 2020년 대비 2023년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73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당 가능

신지원, 후정산

■ 국세청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하듯이, 매달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

안심소득제의 당위성

10

음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 미국에서 1960년대 밀턴 프리드먼의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하면서 음소득세를 실시할 것을 제안
 - 저소득층 및 복지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채택 안됨

안심소득제
(Safety Income System)

- 현실적인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
 - 대부분의 현금성 복지·노동제도 존치하면서, 소득세제의 현행 비과세, 감면, 공제제도 등 유지
 - 현행 적격성 심사 대신에 주로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되므로 송파구 세모녀 등과 같은 안디끼운 사건 방지(先지원, 後정산)

안심소득제는 결국....?

생계들 위한
최후의 보루

- 누구나 실직이나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
- 가족의 생계기 위협받지 않을 때 모험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음: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

실질적인
보편적 복지

-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Pan-Welfare System)**
: 우한폐렴 시대로 필요성 더욱 증대

2021년 50+정책포럼

주제발표 2-3

중장년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학력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 도시정책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과
도시계획학 석사

경력

(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국무조정실 1인가구 정책 TF 위원
국토교통부 1인가구 정책 TF 위원

논문/저서

2021.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지원주택 정책방향과 사업모델 개발. LH
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중장년 1인가구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¹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1. 1인가구 증가양상과 전망

지난 30년간 1인가구의 증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비중을 보면 1985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7% 미만에 불과했지만 2019년 기준, 이는 30.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심지어 2047년 통계청 예측으로는 1인가구가 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30여 년 전(1985년)에 비해 2019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은 9.9배 이상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역으로 4인 이상의 가구가 급감한 것을 의미하고 즉 그만큼 빠른 가구 소형화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5인 이상 가구에서 현재는 1인가구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이는 쉽게 확인된다. 1인가구의 증가는 양쪽으로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4인 이상 가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이미 1985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령대별 가구수 변화는 전화를 전체가구 대상으로 살펴보는 경우와 1인가구 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경우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가구 전체적으로는 청년이 감소하고 노인이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의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 1인가구가 절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의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구가 소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장년의 1인가구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주목한 지점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 그리고 50대 후반에서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15년간 20대 초반에서는 약 11만 가구가 그리고 50대 후반에서는 약 108만 가구가 1인가구가 되었다.

성별로도 1인가구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청년과 중장년은 남성이, 노인은 여성이 홀로 사는 비율

1 본고는 박미선·우지윤(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이 높지만 그 증가하는 양상은 상이하다. (2005년 대비 2019년 기준) 청년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6대 4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년의 경우는 남녀의 비율이 6대 4이긴 하지만 5대 5에서 급격하게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노인은 남녀 비율이 2대 8에서 약 4대 6의 비율로 남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청년은 남성이 혼자 살고 노인은 여성이고 혼자 살던 과거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남녀 모두가 혼자 사는, 특히 남성이 좀 더 혼자 사는 1인가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1인가구의 변화양상이 상이하다. 1인가구는 수도권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는 읍면 지역의 1인가구 비율이 높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그 양상이 상이하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청년의 1인가구화가 두드러진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청년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노인도 30%는 혼자 살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인 세대로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노인층 1인가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수도권의 도시로 갈수록 청년이 혼자 살고 있고 비수도권 안에서는 중장년층이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노년층이 혼자 살고 있다는 지역적 차이가 나타난다.

2. 1인가구 발생원인과 중장년의 위험성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관계와 결혼에 대한 사고 변화에 기인한다. 이는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이 다르고 이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그 기저에 자리잡은 요인이 차별적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1인가구가 형성되는 가장 큰 가족 관계적 요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분리이다. 이는 비혼 또는 만혼이라는 직접적 원인에 영향을 받지만 그 기저에 깔린 요인은 전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와 장기화된 학업과정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의 불안정성, 삶의 질에 대한 높은 추구 등이 요인이 된다. 중장년층의 경우는 가족관계 해체가 1인가구 증가를 촉진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혼 또는 기러기라고 불리는 교육에 따른 인위적 가구분리가 있다. 따라서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적인 능력 하락과 교육을 위한 자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노인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탈락에 의해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 원인은 사별이 크게 작용한다. 기저 요인으로는 성별 고령화와 기대여명 차이가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1인가구 형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고립, 빈곤, 고독사, 네트워크 미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문제가 1인가구 형성에 따라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장년의 위험성은 노숙에서 쉽게 발견된다. 2016년 기준 노숙인은 12,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그 중 시설 노숙인의 구성에서 성별로는 남성이 월등히 높다. 특히 연령대별로 50~64세의 중장년 남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찜질방, 고시원 등 공식적으로 시설이 아닌 거의 노숙에 가까운 주거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모습은 고독사에서 발견된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 고독사는 2020년 기준 총 2,88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남성이 2,172명으로 압도적이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1,298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세분화한다면 중장년층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된 해외에서는 고령자의 고독사가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층에 고독사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는 고독사에 대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도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주거, 생활여건 실태조사 후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에 대응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2016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 광역시도에서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한 후 개별 기초 지자체에서도 1인가구 지원조례 또는 고독사예방과 장례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도 지자체별 특성이 조금 다르다. 일단 서울시 전체에서 사회적 가족을 위한 1인가구 기본 조례가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등이 해당된다. 그뿐 아니라 1인가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강남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예방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1인가구 조례도 있다. 시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구에서 2016년 이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3. 1인가구 주거지원 여부에 따른 격차

1인가구가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여부에 따른 차이가 현격하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와 민간임대 시장에 거주하는 경우의 차이를 살펴보자. 민간임대 중에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저소득인 경우이다. 주택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지 않는다.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다. 단 청년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저소득이지만 공공임대 거주하지 못하고 민간임대 거

주하는 경우에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1인가구의 11.9%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6.6%까지 상승한다. 4050 중장년 1인가구의 16.6%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1인가구가 지옥고라고 불리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저소득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중장년 층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의 경우에 공공임대 거주하는 경우 평균적인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68%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면서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율은 26.8%까지 올라간다. 청년은 공공임대 거주 14%, 민간임대 거주 27%, 중장년층은 공공임대 17% 민간임대 22%, 노인은 공공임대 23%, 민간임대 31%로 모든 연령층에서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높은 것은 소득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과 부담 가구의 비율이 1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30.8%가 자신의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특히 노인이 가장 비중이 높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처의 열악함도 1인가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상황에 놓여 있는 1인가구는 전국적으로 61.5만 가구로 분석된다. 그중 청년이 25.1만, 중장년이 21.5만이다. 양적으로는 청년이 가장 많고 비중으로는 중장년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 연령대별 FGI를 실시한 결과 중장년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경우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거나 요즘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이 아닌 경우는 특별한 정책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장년 여성도 있다.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이 바라보는 시야는 일견 불가피하다는 점도 나타난다.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혼자 살고 있는 중 장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서운함을 아주 없애지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젊은 층이 열심히 일하고 출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면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긍정적인 모습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 중장년의 경우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서의 주거요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일부이지만 공공임대에 입주한 경우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저렴성 그리고 주거의 질적 수준 확보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4. 중장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1인가구는 이제 더 이상 미완의 가족형태나 특수한 형태가 아닌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다. 가구의 소형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청년층의 1인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 50대 후반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과거 노인 여성이 중심이 된 1인가구가 남녀 비율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남성이 더 많이 홀로 살게 되는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1인가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이나 노인 여성 중심의 특정 지역, 특정 대상 지원형 정책으로 취약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여건에서 1인가구는 보증부월세에 주로 거주하면서 높은 주거비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연령대별로는 주거비 과부담은 노인, 청년 순으로 심각하다. 단,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중장년이 높고, 다음이 청년, 노인이 제일 낮아 주거비와 주택의 수준 사이에서 선택의 결과를 보여준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거주 주거안정 효과에서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 경감의 효과가 있고,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물리적 주택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한 유사한 소득층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불안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등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임대 거주를 통하여 청년은 다음 생애 이행을 위한 전세나 분양전환 주택 등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중장년도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 상황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였다. 이에 비해 민간임대 저소득가구는 전 연령대 모두 월세 보조를 희망하고 있어 주거비 보조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중장년 1인가구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년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에 더 큰 만족을 보였다.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낮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은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한 1인가구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문제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효과적이다. 중장년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특히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심각하므로 서울형 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경감방안이 확대될 필요가 높다.

1인가구 정책대상에 대한 심층적 다차원적 고려가 필요하다. 자발성, 지속성(일시적/장기적), 취약성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1인가구를 선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잔여적, 선별적 복지의 틀 속에서 1인가구 정책지원을 지속한다면, 1인가구가 다수화하는 근미래에 사각지대 지속 등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정책의 보편성과 선별성 측면에서 자원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예를 들면, 장기간 1인가구, 비자발적 홀로살이, 돌봄 사각지대, 비적정거처 등) 취약성의 정도에 의거 선별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겠다. 정부에서 1인가구를 보편적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보편적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조사시점이나 정책 발현시점 등) 해당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다면, 1인가구의 정책 대상이 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2021년 50+정책포럼

토론 패널

임성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학력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서강대학교 석사

경력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현) 서울 비전2030위원회 위원(안심안전분과 간사)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출제, 검증, 면접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위원

2021년 50+정책포럼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인 문혜정

편집인 황윤주

기획 강소랑, 권현진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연사들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의 내용은 연사들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50plus.or.kr

2021년 50+정책포럼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